



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한 전염병리스크 헤지

김유미 연구원

요약

■ 최근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,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음. 이에 따라 지난 5월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긴급대응기금을 창설하기로 발표함. 이 기금에는 스위스리, 뮌헨리가 참여하고 세계은행이 대재해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이 조성될 계획임. 보상범위는 신종 인플루엔자, 사스와 메르스, 에볼라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한정하고 연간 보험료는 55~65백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. 보상금액은 바이러스별 발생정도 및 전염규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. 이에 따라 전염병리스크 및 위험관리기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재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.

■ 최근 에볼라, 메르스 등의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,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세계보건을 위협하고 있음.

- 전염병 확산 속도, 규모 및 지역 등은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, 최근 초기대응 실패로 수만 명의 사상자와 큰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음.
 -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 당시 초기에 신속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자는 10배 이상 늘어났으며,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음.¹⁾
-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염병리스크 관리와 건강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발생 후에는 신속한 자금공급과 구호를 통해 큰 피해를 막아야 함.

■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5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 긴급대응기금(Pandemic Emergency Facility) 창설을 발표하였음.²⁾

1) Swiss Re(2016. 5), "Pandemics in a changing climate-Evolving and the global response".
 2) World Bank(2016. 5), "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: Global pandemic response through a financial intermediary fund".

- 동 기금의 주요 참여자는 세계은행, 세계보건기구, 스위스리를 포함한 글로벌 재보험사 등으로 구성되며, 세계보건기구의 긴급대응기금³⁾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예정임.
- 전염병긴급대응기금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대재해채권(Catastrophe Bond)⁴⁾ 발행을 통해 추가자금을 조달할 계획임.
 - 전염병 발생 시 빈도 및 심도가 매개변수 트리거⁵⁾ 이상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며, 손실관련 자료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제공받도록 되어 있음.
 - 보상범위는 신종 인플루엔자, 사스와 메르스 등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, 에볼라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한정하고, 연간 보험료는 55~65백만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함.
 - 연간 보험료는 G7 국가를 중심으로 각출된 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며, 여기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할 보험료와 채권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음.
 - 보상금액은 바이러스별 발생정도 및 전염규모에 따라 결정되며, 인플루엔자 3억 달러, 에볼라 2억 달러, 사스나 메르스 2.5억 달러, 그 외 바이러스 1억 달러를 최대한도로 보상할 예정임.
- 현재 일부 질병군과 77개 빈민국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, 점차 대상국가 및 질병군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보상범위 확대에 따라 재보험시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 - 전염병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의 잠재적 손실액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링 및 위험관리 기법이 중요하므로 보험회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 - 현재 스위스리, 뮌헨리는 세계은행의 협력하에 대재해채권 발행조건을 결정하고, 더 많은 보험회사 참여 시 리스크 풀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과 가격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뿐만 아니라, 보험회사는 대재해채권을 통해 인수능력 초과분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담보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임. **kiri**

3) 2015년 5월 창설된 긴급대응기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으로,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1억 달러 규모로 조성됨.

4)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헤지(hedge)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관리기법임.

5) 재해의 성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별하여 그 값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을 결정하는 방식임.